

계간 **미주문화**

2007

겨울호

미주한국문화인협회

늦깎이 문인의 출판기념회

회장 김동찬

최석봉 시인이 칠순을 맞아 가진 출판기념회에 다녀왔다. 책 출판에다 칠순까지 기념하는 자리라서, 말하자면 겹경사여서, 축하도 두 배로 해야 했고 느낀 점도 두 배로 많은 출판기념회였다.

회갑이나 칠순을 맞은 문인이 자신의 인생과 문학을 정리하는 문집을 엮고, 그 출판기념회로 잔치를 대신하는 것은 뜻 깊고 문인다운 일이라 여겨진다. 연전에는 고원 시인이 다섯 권짜리 『고원전집』을 출판하고 팔순잔치 대신으로 출판기념회를 가진 적도 있다. 이런 분들은 소중한 인생길의 동반자였던 문학을 빼놓고 잔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미주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 중에는 연세가 지긋하신 문인들이 많다. 고원, 송상옥 선생님처럼 50여 년 동안 평생 문학을 해 온 원로들도 계시지만, 나이가 들어서 문학 활동을 시작한 분들도 많



《열린시학》편집인, 글마루 동인, 미주한국문인협회 회장. 저서로는 산문집 『심심한 당신에게』, 시조시집 『신문 읽어주는 예수』, 시집 『봄날의 텃밭』이 있다.

기 때문이다. 미주 한인 1.5세나 2세는 영어권이고, 1세 중 젊은 사람들은 이민생활에 적응하라, 애를 낳아 기르라, 생업에 종사하라 글을 쓸 생각조차 하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고 정신적인 행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될 나이가 되었을 때 억눌러두었던 문학에 대한 열정을 끄집어내다 보니 한국 같으면 은퇴할 나이에 문학을 시작하기도 한다.

최석봉 시인도 마찬가지다. 23년 동안 한 곳에서 리커스토어를 운영하다 아이들 셋을 훌륭하게 성장시킨 후에야 은퇴를 하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 문학 지각생인 그의 작품은 한국에서 평생 전업으로 글만 써온 작가들의 글에 비해 덜 다듬어진 느낌을 주기도 했지만 나는 오히려 그 거친 듯한 생동감이 더 좋았다. 걸만 번지르르한 미사여구 보다는 살아있는 진솔함이 더 문학적 감동을 주는지 그의 시집을 읽으며 몇 차례 눈물을 참아야 했다.

제대로 몇 편 읽어보지도 않고 미주 시인들은 고향 타령만 한다고 쉽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내가 아는 한 고향을 그리워하는 글만 쓰는 작가는 미주에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러나 또 그걸 주제로 작품을

써보지 않은 미주 문인 또한 없을 것이다. 최 시인의 시에도 주된 모티프로 그리운 고향과 어머니가 등장한다. 그러나 서울에서 두 세 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고향과 동일한 고향이 아니다. 태평양과 긴 시간을 건너와 함께 바라보는 고향이 그의 시를 읽는 우리 이민자들에게 큰 그리움으로 공감대를 덮쳐온다.

미주 문인들의 글에는 한국의 문학 작품에는 볼 수 없는 미주 이민자의 눈물과 땀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로 담겨있다. 최 시인이 권총강도를 밥 먹듯이 당했지만 그래도 굽지 않고 가정을 꾸려갈 수 있어서 아직도 고맙게 기억되는 가게의 주소가 '원원 세븐 오 에잇 베니스 블르바드'다. 이 주소에 바쳤던 긴 세월과 경험의 녹아 시가 됐고 바로 첫 시집의 제목이 되었다.

나이가 들어 문학을 시작하는 미주 문인들은 지나간 세월을 보상이라도 받겠다는 듯이 문학에 대한 열정을 불사른다. 웬만한 젊은이들은 흉내낼 수 없을 만큼 부지런하다. 창작교실에 밤 운전을 해서 늦게까지 참석하고 열심히 글을 써낸다. 최 시인만 해도 약 10년 동안 쉬지 않고 시를 창작해 네 권의 시집을 출판했다. 출판기념회장에서 한 시인은 모든 문학모임에 최 시인이 빠짐없이 늘 먼저 와 있었

다고 기억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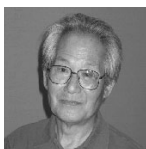
최석봉 시인과 같이 대다수 미주의 문인들은 돈이 되지 않고 권세도 누릴 수 없는 이 문학의 길에 늦게 들어서서 묵묵히 글을 쓴다. 신세타령이나 하거나 방탕한 생활을 하고 무기력한 노후를 보내는 것보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칠순에, 팔순에, 미수에, 생의 많은 고비를 넘으며 느꼈던 감동과 지혜가 담긴 글을 후학들에게 남기는 이 늦깎이 문인들에게 존경과 갈채를 바친다.

현대 문예사조 개관 3 상징주의

고 원(高遠)

인간이 상징을 생각해 내고 실생활의 여러 면에서 그것을 활용한 지혜는 실로 아득한 옛날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구약시대 이전의 신화에 이미 온갖 종류의 상징이 등장했고, 구약성경도 첫 머리부터 상징이 중요한 구실을 한다. 유사시대로 들어선 후에 건축 양식, 각종 의례(儀禮), 의상과 장식품 등, 거의 모든 것이 상징성을 지니고 인간 생활을 풍부하게 만들어 왔다. 각국의 국기는 단 하나도 빠짐없이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광범한 뜻으로 보자면 특별히 ‘상징주의(Symbolism)’라고 부르는 “주의”가 있을 것 같지 않다. 그러나 문학예술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방법을 의식하게 된 19세기 말엽의 예술가들이 첫째 주목한



New York University 비교문학박사, 1952년 3인 시집 『시간표 없는 정거장』을 출간한 이후로 50여 년 동안 수많은 시집, 시조집, 산문집 등을 저술. 이를 『고원문학전집』으로 정리. 현재 라번 대학 교수, 글마루 지도 교수, 미주 한국문인협회 고문.

것이 ‘상징’이었고, 사실주의와 자연주의에 맞서는 체계적인 운동을 하면서 ‘상징주의’의 깃발을 올리게 됐다.

사실은 굳이 그 운동의 특별한 주장이나 흐름이 아니더라도 모든 문학 예술의 특질 가운데 하나는 상징성이다. 자기 자신을 상징주의자라고 구별하지 않는 문인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의도하지 않고도, 상징주의자가 돼 있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처럼 일반적인 공통점과 달리 문예운동으로서의 상징주의가 지닌 특징이 있다.

1. 상징은 무엇인가

왜 모든 문학예술은 상징성을 본성적으로 지녔을까. 그것은 아마 문학이나 예술의 깊은 밑바닥에 ‘혼’의 저변이 깔려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참 신비롭게도 육안에 보이지 않는 ‘혼’은 구체적인 형태로 표현되기를 원한다. 혼과 상상이 만나는 정점에서 이미지의 섬광이 고착된다. 이 얼마나 신기한 일인가.

나는 역경(이정, 易經)의 기본이 되는 ‘팔괘(八卦)’를 바라보면서 감탄할 때가 자주 있다. 온전한 직선과 직선을 반으로 자른 절반의 선을 묘하게 배합한 도표 속에 우주가 있다. 물론 기초적인 기 또는 힘은 음과양이다. 기호, 부호가 보여주는 만능의 기능을 보라. 동서남북 4방위뿐만 아니라 더 상세하게 구분한 각 방위의 기호가 하늘과 땅, 우주의 원소, 강약, 장단, 강직(剛直)과 유연(柔軟), 남성과 여성, 가득함과 모자람, 냉(冷)과 열, 각 계절 기타 자연계와 비자연계, 온갖 인간사를 말 한 마디 없이 종이 한 장에 도시(圖示)해 놓았다. 이 모든 상징이 간소하게 집약된 표상이 태극기 아니겠는가.

여러가지 상징 사전들을 펼쳐 보면 이와 비슷한 물체, 그림, 그리

고 기호의 상징은 온 세계에 얼마나 많은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신화나 전설은 이야기의 내용이나 등장인물, 자연현상 등이 다 그렇다.

칼 융(Carl Gustav Jung)은 말했다. “상징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을 베일(veil) 속에 가리는 싸인이 아니다. 그런 것은 상징의 중요한 면이 아니다. 그와 반대로, 상징은 여전히 전적으로 미지의 영역에 속했거나 혹은 아직은 존재하지 않은 것을 애날로지(유추, 類推)의 방법으로 명백히 밝히려 하는 시도를 대표한다.”

전통적인 한국문화에도 귀한 상징이 풍부하다. 한복의 버선 모양이나 한옥의 지붕이 끝나는 선만 보아도 칼 융의 상징 정의가 이해될 직 하다. 상징과 함께 살면서 상징을 창조하는 사람들은 지혜와 상상의 축복을 받은 천재들이다.

2. 선구자들

상징주의의 온상은 자연히 시일 수 밖에 없었다. 그것은 전대의 사실주의와 자연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일어났기 때문이다. 사실주의와 자연주의가 현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려는 운동이었고, 거기 대한 반동을 스스로 불러들였다. 그 반동은 자연히 정신적인 것—즉 속성(俗性)을 초월한 것, 영성(靈性)과 상상, 그리고 꿈을 존중하는 움직임이었다. 바로 그것이 상징주의로 넘어가는 큰길의 출발점이었다.

문학 부문의 상징주의운동은 샤를르 보들레르(Charles Baudelaire)의 *Les Fleurs du mal*(The Flowers of Evil, 악의 꽃)에 뿌리를 박고 있다.

상징주의 시의 미학 상징시의 시학은 1860년대와 1870년대에 말라르메(Stéphane Mallarmé)¹⁾와 베를레느(Paul Verlaine)가 발전 시켰

고, 1880년대에는 일련의 선언들을 통해 이론 체계가 강화 되면서 한 세대의 작가들에게 환영을 받았다. 상징주의 발달에 있어서 잊어서는 안될 미국의 시인은 에드가 앨런 포우(Edgar Allan Poe)다. 특히 보들레르가 높이 평가한 그의 비유법과 영상법이 큰 영향을 끼쳤다.

3. 상징시의 미학과 철학

상징주의자들은 예술이란 무엇보다도 절대적 진리/진실을 파악하는 데에 목표를 두어야 하며, 그것은 오직 간접 방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들은 고도로 은유적이며 암시적인 (metaphorical and suggestive) 기법을 구사했다. 이 기법은 특수한 이미지 또는 오브젝트에다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특색이다.

상징주의 manifesto 중에서 대표적인 선언은 1886년에 모레아(Jean Moreas)가 9월 18일 자 *Le Figaro*에 'Le Symbolisme'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모레아는 이 선언문에서 상징주의는 “평범한 의미, 연설 투의 말, 가식적인 우수(憂愁), 그리고 있는 그대로 내놓는 묘사”를 적대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반대로 상징주의의 목표는 “이상을 지각할 수 있는 양식(perceptible form)에다 옷을 입히는 것이며, 또 그렇게 하는 목표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상을 표현하는 일에 유일한 목적을 둔다”고 천명했다.

이보다 조금 앞서 1884년에 베를레즈가 발표한 일련의 시인론 역시 상징주의의 진수를 정의 내리는 데에 큰 공헌을 했다. 그는 특히

1) 말라르메 기타 인명에서 불어의 모음 위에 붙는 악상폐규 등 기호를 전부 뺄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자)

Tristan Corbier, Arthur Rimbaud, 그리고 말라르메 등 “저주 받은 시인들”을 논하면서, 그들 각자의 존재성과 시인의 구실이라는 개념을 쇼펜하워(Arthur Schopenhauer)의 예술론과 연결 지었다. 비관론 철학자인 쇼펜하워는 예술의 목적은 의지(will)의 맹목적인 싸움에 차있는 세계로부터 일시적으로 피하는 피난처를 제공하는 일이라고 보았다.

상징주의자들은 바로 그 싸움과 의지의 세계로부터 빠져나오는 예술적 피난을 추구했다. 자연히 창작 면에서 독특한 신비주의(mysticism), 탄 세상의 것, 제한된 생명 의식, 그리고 섹스의 악한 힘 같은 주제를 다루게 됐다. 이런 경향을 대표하는 작품이 말라르메의 “Les fenetres”라는 시일 것이다.

4. 상징시의 특색과 기술

기술 문제는 언제나 개인의 영역에 속한다. 그러나 다소 일반화해서 특징 있는 기술을 장리해 볼수 있을 것이다. (1) 상징 시인들은 재래식 운율법에서 해방되기를 원했다. 더 크고 넓은 유동성을 갖기 위해서였다. 이것은 곧 자유시(free verse)를 향한 운동과 맥락을 같이 했다. (2) 상징시는 묘사를 멀리 하고 ‘유발’하기를 힘쓴다. (3) 시인이 지닌 혼의 상태에 가치를 중시해 상징적 이미지리를 활용한다. (4) 심리학에서 말하는 공감각(共感覺) 경험을 중요시한다. 즉 상징 시인들은 냄새, 소리, 빛깔 등 서로 다른 별개의 감각을 동질성으로 만들려 하는 경향이 강했다.

여기까지 나온 말들을 가지고 상징 미학을 간명하게 장리해 보자.

- ① 상징주의는 사물의 내면에 잠재해 있는 영성을 존중한다.
- ② 절대적 진리와 진정한 이상(the Ideal)을 탐구한다.
- ③ 표면상의 상태를 무의미하게 서술, 묘사하는 일을 거부하고 의미 있는 예술적 '표현'에 치중한다.
- ④ 간접기법에 따른 표현은 암시적이고 은유적이어야 한다.
- ⑤ 시의 음악을 존중하고 강조한다.

5. 상징시의 예 2편

그 많은 상징시의 소위 대표작만이라도 이 자리에서 감상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널리 알려져 있는 시 두편의 일부를 붙여 원작과 영어 번역으로 소개한다. 이 시에서 두 시인은 다 감각 하나의 경험을 다른 감각 경험과 동질시 하고자 하고 있다.

(1) Baudelaire의 'Correspondences'

Il est des parfums frais comme des chairs d'enfants,
Doux comme les hautbois, verts comme les prairies,
Et d'autres, corrompus, riches et triomphants,

Ayant l'expansion des choses infinies,
Comme l'ambre, le musc, le benjoin et l'encens,
Qui chantent les transports de l'esprit et des sens.

(There are perfumes that are fresh like children's flesh,

sweet like oboes, green like meadows
_And others, corrupt, rich, and triumphant,

having the expansiveness of infinite things,
like amber, musc, benzoin, and incense,
which sing of the raptures of the soul and senses.)

(2) Rimbaud의 'Voyelles'

A noir, E rouge, I rouge, U vert, O blue: voyelles...
(A black, E white, I red, U green, O blue: vowels...)

6. 다른 지역의 상징주의

프랑스 이외의 다른 지역, 특히 영미 현대사에서 상징주의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발전했는가를 살펴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 문제는 그것만으로도 방대한 작업이어서 다음 기회로 미루고 여기서는 생략한다.

7. 다른 예술 분야

상장주의는 문학 안에서 흔히 '데카당' (Decadence, 'decadent') 과 혼동되기도 하는 중에 상당한 차이를 가진 채 다른 예술 분야에 널리 퍼졌다. 특히 미술에서는 신화와 꿈을 많이 다루었다. 그 밖에

음악과 연극에도 독특한 상징주의 예술의 꽃을 피웠다.

참고 문헌

수없이 많은 연구 서적이나 논문을 극히 적은 부분만이라도 나열하고 싶지 않다, 고민 끝에 필자 자신이 NYU에서 직접 지도를 받은 Balakian 교수의 저서와 아주 간편하게 정리된 다른 연구서 하나씩을 택했다.

Balakian, Anna. The Symbolist Movement Symons, Arthur. The Symbolist Movement in Literature. New York, E. P. Dutton, 1919.